



水公, 금강 세종보 기름 유출사고 축소 의혹

대전·충남녹색연합 “능장대응·규모 축소 의혹 철저히 밝혀라”

최근 금강 세종보 유압유 유출 사고 당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고 규모를 축소하는데 급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사건의 진위를 파악해 향후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고를 은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수자원공사는 기름이 친 환경 제품으로 수생태계에 영향이 없고 수질분석 결과도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사

고 수역 수질조사 결과를 보면 1급 발암물질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자원공사는 1차 수질 검사와 달리 2차 수질 검사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자 대전·충남녹색연합의 조사 결과 공개 요구도 거부하는 등 사고를 축

소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전충남녹색연합 측은 주장과 달리 수자원공사는 1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유출된 유압유는 친환경 제품으로 수생태계에 영향이 없고 수질분석 결과도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측은 수자원공사의 초동대처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자원공사의 초동대처는 사고를 축소하고 은폐하는 일에 집중했지 제대로 된 방제와 대책 마련은 뒷전이였다. 수자원공사는 사고 발생 당일 금강유역 환경청과 세종특별자치 등 관련 행정기관에 제대로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과와 당직실 등에 확인한 결과 당일 수자원공사로부터 사고 관련 어떤 보고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금강유역환경청의 사고 관련 보고나 접수는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와 대전충남녹색연합 사고 관련 문의가 전부라고 밝히고 있다. 해당 지자체인 세종특별자치시도 녹색연합이 알리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시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사고가 오전 10시 45분에 발생했다는 수자원공사 설명과 달리 두 시간 전에 유압유가 유출됐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수자원공사는 능장대응과 규모 축소 의혹에 대해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말했다.

앞서 세종시 금강 세종보에서는 지난 10일 오전 8시30분부터 유압실린더에서 유압유 300ℓ가 유출돼 가로 10m, 세로 10m의 기름띠가 생겼다.



공주시 귀농·귀촌의 메카로 ‘발돋움’

상담 방문 지난해비 2배...市, 지원조례 개정 등 기반 마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귀농·귀촌 사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시는 귀농귀촌정책사업을 10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사업을 비중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건설과 소관 전원(신규마을조성사업) 업무와 농촌진흥과 소관 귀농귀촌사업 업무를 통합, 시정발전연구과에 귀농귀촌팀을 새롭게 구성했다.

시에 따르면, 귀농귀촌 유입 인구는 지난해 60여가구에서 올해 115가구로 크게 증가했으며, 귀농·귀촌 관련 상담 방문자는 6월 말 현재 580여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원인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착장려금 3백만원과 주택수리비 2백만원의 지원사업과 귀농 후

농업창업비 융자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비 지원 등 강력한 귀농귀촌사업의 추진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시는 초기 귀농연수생이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습득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선도농가와의 현장실습교육도 해마다 10명씩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충남도내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국비사업 대상자 51개팀 중 정안면 최상규, 임대 두 팀이 충남도에서는 유일하게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귀농 정착에 성공한 귀농인 협의회원 40여명과 함께 전국 단위의 각종 박람회와 석정기 세계구석기 축제 등에 참가해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비롯해 관광지, 농특산물, 축제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 결과 서울 양

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2016 성공귀농·행복귀촌 박람회’에서 귀농귀촌 우수홍보관으로 선정되는 등 귀농귀촌 홍보활동에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현재 귀농인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주시 귀농인지원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 3년간 6억원을 지원받아 귀농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할 예정이다.

공주시 시정발전연구과 귀농귀촌팀 박지동 팀장은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관련 문의 전화와 방문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공주시가 귀농귀촌의 메카로 발돋움 하고 있음을 새삼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구 증가를 통해 농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 기자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 한·미 공식발표

“군사적 효용성·국민안전 최적지”... 지역민 이해 당부

한·미 군 당국은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경북 성주(성산리 성산포대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를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류 실장은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2분의 1~3분의 2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

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실장은 “그동안 한미 공동실무단에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해 여러 후보지에 대한 비교평가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인식하는 우리 군의 충정을 우리 국민과 성주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세종시 초등학교 내년부터 중간·기말고사 폐지

“교육과정·학생성장 중심수시·상시 평가 도입”

내년부터 세종지역 초등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가 폐지되고, 수시·상시평가가 도입된다.

유인식 세종시교육청 학교혁신과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기말고사 등 정기적인 지필평가보다는 수시·상시 평가가 학습과정을 확인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교사는 학년 초 또는 학기 초에 교과별로 평가요소를 추출해 평가 절차, 시기, 방법, 문항 제작 등을 사전에 계획, 수업과정에 수시로 하는 수행평가 중심의 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가급적 선다형 문항과 단답형 문항을 최소화하고 학생의 창의력과 사고력,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수행평

가, 서술·논술형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

유인식 시교육청 학교혁신과장은 “평가방법 변화로 기초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수시·상시평가를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해 성취기준과 학생의 성취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며 “기초학력 저하 우려는 기우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정환 기자

Mission for Human

현대파워텍의 변속기 기술은 인간을 위해 헌신합니다

자동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을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여는 것입니다. 변속기 역시 그 목표를 위해 헌신하여 합니다. 현대파워텍의 변속기가 탑재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동차의 안전과 통행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두려움의 제거를 느끼는 행복한 자동차 운행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현대파워텍의 인간을 위한 기술입니다.

4.2L D4BE AT

4.2L D4BE AT

4.2L D4BE AT

4.2L D4BE AT

HYUNDAI POWERTECH

대전시의회 교육위, 2016년도 하반기 대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청취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제기”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병철)는 13일 2016년도 하반기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청취회를 가졌다.

이날 위원회 질의 내용은 박병철 위원(대전구3, 더불어민주당)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른 교육청의 준비현황을 질의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로 인하여 학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김인식 의원(서구3, 더불어민주당)은 대전봉산초 급식 사태의 원인과 조치사항을 질의하면서 학교의 관리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고, 급식 전수 조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환경 등이 좀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윤진근 의원(중구1, 새누리당)은 학교급식 단가가 타시도에 비해 낮은 것을 지적하면서 학급 급식 업체선정 방법과 급식비 구

성 내역 등을 질의하였고 대전시와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급식비 지원단가의 인상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현영 의원(대전구2, 새누리당)은 봉산초 급식사태를 계기로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동서부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예산 지원과 우수하인 인사발령 등의 다양한 방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정환기자

“안면도 개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내야”

충남도의회 문복위,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3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지지부진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은 “환황해권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충남관광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잊힌 문화 발굴 및 복원이 미흡하다. 중고제와 보부상 복원을 학술 세미나를 통해 역사·문화 인식을 고취시켜 달라”고 말했다.

정성희 위원장은 “2020년까지 태안군 안면읍에 총1조474억원(민간자본 9064억원)을 투입, 호텔과 콘도 등을 건립한다”며 “안면도 개발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보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기철 위원(아산1)은 “충남의 대표 도서관이 내년 문을 열 계획이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가구배치부터 운영 기본계획 등까지 내실 있게 추진해 충남의 지식·정보의 창구가 되여 달라”고 요구했다.

김홍열 위원(청양)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체육회와 생

활체육회가 통합됐지만, 내용이 있다”며 “시·군 체육회는 물론 종목별 통합에 갈등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관련, 1조2577억원이 투입된다”며 “중국인 유치 전략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원태 위원(비례)은 “충청유교 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충청지역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독특한 콘텐츠 구축과 유교문화의 현대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윤지상 위원(아산4)은 “시·군 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등 지역문화 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환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민선6기 현안사업들 정상추진에 최선 다해줄 것”

대전시의회 행정위 ‘대전시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혜련은 13일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대전광역시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박정현 위원(서구4,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통계 조사가 대부분 하반기에 이루어져 생성된 자료가 다음연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통계청과 협의하여 조사 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겨 통계자료가 주요 현안에 적시에 연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련 위원(서구1, 더불어민주당)은 시·군 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등 지역문화 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환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에서 대전광역시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김경시 의원(서구2, 새누리당)은 공기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 현황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고,

김종천 의원(서구5, 더불어민주당)은 사이언스 콤플렉스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향후 대형 국책사업 공모·유치 시 우리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별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

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충남도교육청 공직자 자녀 입영 특별휴가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교육위 ‘충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원안 가결



군(軍)에 입대하는 자녀를 둔 충남교육청 공무원에게 특별휴가가 주어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경수 위원(아산3·사진)은 “충남도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병역의무의 자랑스러운 사회분위 조성

하를 고려할 때 자녀가 군 입영 시 가족이 배웅하는 문화 정착시켜야 한다”며 “학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대한 학교 활동을 적극 참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휴가를 활용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기 직무에 충실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질 좋은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이정복기자

김영규 위원(아산2)은 “수돗물이 깨끗하지 않다는 선민관이 팽배하다”며 “비싼수돗물을 공급하고 정수된 물을 사먹는 것은 낭비다.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김홍열 위원(청양)은 “농산물검사소 준공이 늦어지는 것은 연구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과 약속은 철저히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은 “연구원이 내포에 이전할 예정인데, 고가의 검사 장비 등을 안전하게 이전



“예시중·고등학교 정상화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대전시의회 대전예시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호)에서는 12일 특별위원회2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별도의 정책간담회도 실시했다. 황인호 예시중·고정상화추진 특위 위원장은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면서, 조속한신규이사진 선임을위해 우선 2016년 9월까지 활동계획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기간중 회의를 4회 개최하고현장방문 1회, 정책간담회 4회를실시하여 학습자의 학습권을보호하고, 평생교육 사설의책무성과 투명성을확인할계획이다. 아울러, 정책간담회에서는 교육청관계자와예시중고비르게세우기 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정태현 외 7명)를초청해 학생과교직원이희망하는정상화제안과 교육청의조치계획을청취하며갈등을조정하고자소통의자리를마련했다.

더민주당 이상민 의원, <지방세법개정안> 대표 발의

재산세과세를 일일계산하도록 하는 내용



이상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은 재산세과세를 일일계산하도록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재산세 과세기간에 매달 또는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기준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1년분 전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세기간 중 매매,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승계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간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국민이 납득할만한 원칙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소유기간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며, 법률 통과를 위해 토론회와 간담회 등 법률통과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태선기자

세종시선관위·대통령기록관, 미래리더 양성위한 업무협약

민주주의·선거과정 체험과 대통령리더십체험 통해... 미래 리더 꿈꾸고 준비할 계기 마련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기록관과 13일 대통령기록관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미래리더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대통령기록관이 선관위의 ‘민주주의 선거교실’ 운영을 위한 체험장, 견학·체험 프로그램 제공 ▲선관위는 대통령기록관의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위한 선거 체험 장비 등의 제공이 주요 내용이다.

이진호 선관위사무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이해와 함께 대통령의 리더십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리더로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훌륭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양기관은 민주주의·선거과정 체험과 대통령 리더십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 리더를 꿈꾸고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김정환기자

전염병예방 및 대기오염물질 감시시스템 효율적 운영 주문

충남도의회 농경환경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충남도의회 농경환경위원회는 13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염병 예방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감시시스템 효율적 운영을 주문했다.

송덕년 위원(논산1)은 “해외유입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분석을 철저히 시행해 달라”며 “일본 뇌염 도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또한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남도의회 농경환경위원회는 13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염병 예방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감시시스템 효율적 운영을 주문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대기이동측정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기 측정망 미설치지역 및 민원 다발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며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 질 측정을 강화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병국 위원(천안3)은 “수질측정 정거장으로 해야 한다”며 “하천 등에 악취가 발생하는 사례

가 많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 측정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홍열 위원(청양)은 “농산물검사소 준공이 늦어지는 것은 연구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과 약속은 철저히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복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원 가격으로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보문로 121-1 11층 1106호 1115호

www.daejeontoday.com

“조국 근대화의 원동력... 교과서에 파독정신 게재했으면”

박소향 (사)재독한인간호협회 사무총장

우리나라 간호사가 독일로 파견된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지난 60~70년대 어려운 시기에 머나먼 낯선 미국 땅에서 가족과 조국을 위해 헌신한 파독간호사의 고귀한 애국정신이야말로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독일 예센시 광산회관에서 진행된 ‘파독 간호사 50주년 기념식’에서 영상에 시지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머나먼 미국에서 가족과 조국을 위해 헌신해 주신 여러분(파독 간호사)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또 박 대통령은 “올해는 여러분이 독일에 가신지 꼭 반세기가 되는 해”라며 “여러분이 흘렸던 땀과 눈물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됐고, 독일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신뢰를 주면서 양국관계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고 했다.

대전투데이는 그동안 파독간호사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역사적 의미를 널리 대내·외에 홍보해온 (사)재독한인간호협회 박소향 사무총장을 만나 그동안의 협회 활동과 성과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간호사가 독일에 대규모로 파견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50년 파독간호사 역사입니다. 우선 반세기 파독간호사들의 독일사회에서의 위상이 높게 평가 받았다는 점에서 뿌듯한 자부심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딸들로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파독간호사는 파독 광부와 함께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파독간호사들에 대해 한국정부에서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움은 없는지요.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파독간호사들의 미래에 대한 삶이 되겠습니다. 모국에 와서는 체류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렴한 임대주택과 의료보험등 교포들의 와서 걱정없이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점은 교과서에 파독정신을 올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사 파독 50주년에 즈음해 국내·외에서 이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열렸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사를 진행했고 계획하고 계신지요.

한국간호대학 학생들의 독일병원 현지 실습과 좀더 구체적인 간호학계의 발전을 위한 두 나라의 국제적인 교류입니다. 교수진들이 먼저와 실지로 보고 듣고 해하기에 이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각 학교에 파독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라 생각하기에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파독 간호사들에 대한 평가와 시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독일사회에서의 파독간호사들의 평가는 천사로 불리어질 정도로 그 위상이 높으며 현재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외국인들의 난민 정책에서의 제 1의 성공적인 사례로 그 위상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께서 재독 간호사를 지원한 이유와 당시 독일에서의 간호사 생활은 어떠했는지요.

1970년대 독일인들의 삶은 선진국으로서의 대단한 직위를 지키며 있었고 의료계통에서 인원이 부족한 점을 이어 한국간호사들의 일터는 우선 고되고 힘들고 낯선 독일의 문화에 적응 하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파독한 이유는 좀더 나은 삶, 즉 여성으로서의 사회생활이 더 중요했고 간호사로서의 독일인들과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었다는 점입니다.

독일인들에게서 인정 받고 함께 일 해나가며 독일간호학생들의 실습 담당은 그 없이 내 삶에 자신감과 자부심을 심어 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한국여성으로서의 국위선양 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그 전문직의 우리 문화를 알리고 보급 하는 일이 한국인으로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더 없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재독한인 간호협회는 언제 출범했고,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1985년에 출범 했으며 현재 재독한인간호협회에서의 일은 독일안에서는 노후 건강 세미나, 독거노인 보살피기, 한국의문화를 알리고 초빙강사를 모시고 워크샵과 오리엔테이션 등을 하고 있으며 점점 더 심해지는 모국을 그리움을 고쳐 해 마다 모국방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국방문을 겸한 파독정신을 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의 간호학과들과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지요.

대구보건대학, 광주보건대학, 대전보건대학, 광주기독교보건대학 등과 교류를 하고 있으며, 서울이화여자간호대학교와 교류 추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는 11월 대전투데이 창간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독일 아리랑' 뮤지컬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려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대전투데이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독일아리랑 뮤지컬 이종서 대표님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파독광부간호사들의 역사를 알리고자 하는 그 애국적이며 우리들의 실질적인 삶을 표현 해 준다는 것에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아리랑' 공연이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 받는 뮤지컬이 되어 오래오래 빛이 나기를 기원합니다.

대담 = 이정복 정치행정부장

현대식 전통 가옥

MODERN TRADITIONAL HOUSES

BEST PLAN 옛 한국 전통 가옥의 정점과 현대적인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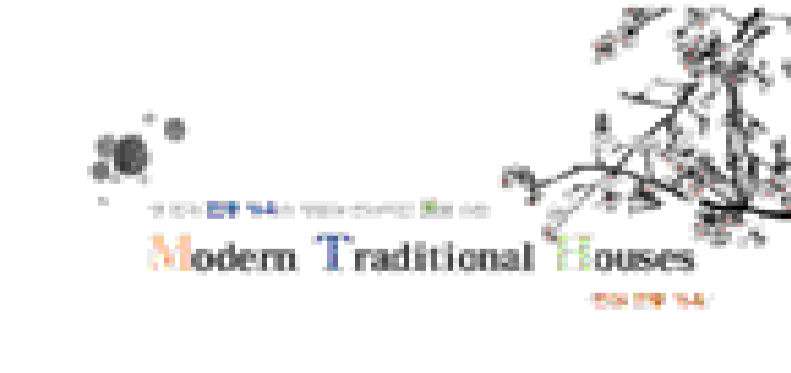
1 친환경적이다 Eco-Friendly

온도조절이 쉬운, 친환경적인 재료 덕분에 나무로 구성된 구조물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느낌과, 안정적인 구조를 느낄 수 있고, 절로가 채우고 있는 공간 덕분에 실내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은 물론 에너지와 수리 등의 유지보수를 절감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과 함께 건강과도 관련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3 전통적인 아름다움 Traditional Beauty

전통적인 아름다움에 '모던' 또는 '현대적'을 더하고, 그 결과 '현대적' 또는 '현대적' 아름다움의 아름다움을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적인 아름다움의 아름다움입니다. 또한 아름다움은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움, 그리고 아름다움에 현대적인 아름다움의 아름다움입니다.



2 난방이 편리하다 Convenient Heating

온도 조절은 난방을 위한 구조물입니다. 또한 난방은, 이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조물 덕분에 실내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은 물론 에너지와 수리 등의 유지보수를 절감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과 함께 건강과도 관련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올 여름휴가 여행지로 '제주도' 1위

<글로벌 호텔 검색 엔진 호텔스컴바인> 여름휴가 예약 데이터 20만 건 분석한 결과

글로벌 호텔 검색 엔진 호텔스컴바인(www.hotelscombined.co.kr)은 올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름휴가지로 선택한 도시 1위는 제주도로 나타났다. 13일 밝혔다.

호텔스컴바인이 호텔스컴바인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누적된 여름휴가 예약 데이터 20만 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예약률을 보인 도시 1위는 제주였으며 부산과 오사카가 그 뒤를 이었다.

제주와 부산에 이어 3위는 오사카, 4위 타이페이, 5위 도쿄였으며, 이어 홍콩,

싱가포르, 방콕, 괌, 후쿠오카 순의 예약률을 보여, 해외여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까운 여행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제주는 작년 동기간 집계에서 오사카에 이어 2위였으나, 최근 예약순위가 크게 올라 1위를 차지했다. 부산 역시 작년 대비 예약이 크게 늘어, 해외여행 열풍 속에서도 국내 휴양도시의 명성을 입증했다.

가장 많은 선약을 받은 도시인 제주에서 가장 높은 예약률을 보인 호텔은 '퀵싱턴 호텔 제주'였으며, 부산의 경우 '이

비스 버켓 엠베서더 해운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곳 모두 고급스러운 내부 시설과 직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호텔이다. 반면, 오사카는 '플로라인 난바'가 가장 높은 예약률을 기록해, 교통의 편리성, 가격 경쟁력 등이 호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호텔스컴바인 최리아 마케팅 부장은 "작년까지 꾸준한 인기를 이어오던 일본여행이 지진과 엔고현상으로 동력을 잃은 틈을 타, 제주와 부산이 고급 숙박 시설과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무기로 약진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본격적인 휴

가시즌에 돌입하기 전 미리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해둔다면, 조금 더 저렴하고 여유 있게 여름휴가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텔스컴바인은 전세계 100만 개 이상의 호텔 정보를 실시간으로 비교·검색할 수 있는 글로벌 호텔 검색 엔진이다. 호텔스컴바인을 통해 아고다, 호텔스닷컴, 호텔팩스, 하나투어, 호텔엔조이 등 세계 주요 여행사에서도 제공하는 호텔 예약정보 및 최저가격을 한번의 검색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송병배 기자

공주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행복공주를 만드는 소중한 세금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2016년 7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4만5552건에 63억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번 7월에 일시 부과하며, 10만원 초과하는 7월과 9월에 2분의 1 금액으로 나눠 부과한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억 5500만원(4.21%)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의 상승, 국제청에서 고시한 건물 신축 가격기준액 상승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

다.

재산세 납부는 7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특히 지난 6월 1일에 개통한 ARS간편 납부서비스(☎1899-2777)로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납세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는 윈스플러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65) 또는 ARS 1899-2777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정상범기자



영·호남 철도동맥 진주~광양 복선화 구간 14일 개통

철도공단, 영·호남 교류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기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영일)은 영·호남 간 교류를 촉진하고 남해안축철도망을 확충하기 위한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51.5km)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14일 개통한다.

공단은 지난 2010년 12월 삼랑진~마산, 2012년 12월 마산~진주 구간을 개통했으며, 15일 진주~광양 구간까지 개통함으로써 삼랑진에서 순천에 이르는 경전선 158km전 구간을 복선화했다.

이번 복선화 사업을 통해 경전선은 경남 진주에서 전남 광양까지 4개의 시·군(진주, 사천, 하동, 광양)을 통과하고 선진강을 횡단하며 영·호남을 연결하게 된다.

노선이 개통되면 당초 73분이 소요되던 진주~광양 구간을 31분 단축된 42분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되며, 이로써 지역 간 교류와 지역 균형발전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남해안권 철도

망(삼랑진~순천) 복선화가 완료됨에 따라 선로용량이 증대되고 철도수송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김영일 이사장은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은 공사가 시작된 지난 2006년 이래 약 10년 동안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무재해 철도건설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경전선에 이어 앞으로 국민편의 중심 철도망 구축에 더욱 매진해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인주면-미래세탁소후원 협약 체결

아산시 인주면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정광희)은 12일 인주면 밀두리 소재 미래세탁소(대표 이 영)와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무료 세탁지원 서비스'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후원협약으로 미래세탁소는 관내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중 혼자 세탁을 하기 어려운 자 중에서 매월 3가구를 선정해 무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광희 추진단장은 "행복키움추진단을 중심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을 후원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복지자원을 발굴·연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세탁소 이 영 대표는 "이번 후원협약으로 인주면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한국 목재제품 글로벌시장 향한 힘찬 날갯짓"

국내 최초 참가... 현지 대리점 개설 제의·기술협력 방안문의 쇄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된 '2016 국제 건축장식 박람회'에 최초로 참가해 우수한 품질의 국내 목재제품을 적극 홍보한 결과 약 250건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8회째인 광저우 국제건축장식

박람회는 세계 각국에서 2200개의 관련업체가 참가하고, 방문객만도 82만 명에 달하는 아시아 굴지의 대규모 건축 박람회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선상산업, 동화기업, 유니드, 한솔홈데코, 선창ITC, 경민산업, 시공사 등 국내수출업체 7개사가 참가해 수출효과제품인 섬유판(MDF)과 마루

판 제품 등을 전시·홍보함으로써 국산 목재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했다.

중국은 물론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방문한 관련바이어들은 한국 목재제품의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목재가공 기술력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현지 대리점 개설 제의와 기술협력 방안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다.

이외에도 aT는 박람회에 참여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현지 목재시장 전문가를 초청한 수출세미나도 개최해 글로벌 건축자재와 인테리어 시장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지 진출방안을 모색하는 정보교류의 시간을 제공했다.

aT 김재수 사장은 "이번 국제 건축장식 박람회 참가는 입산물 수출의 최대 효자제품인 국내 목재제품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aT는 우리 목재제품이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고급건축과 가구, 그리고 인테리어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해외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신창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한 문패 부착

아산시 신창면(면장 정병우)은 신창면 이장협의회(회장 류철현)가 지난 12일,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 효과적인 발굴을 위해 관내 아파트지역 복지이장들의 현관문에 '복지이장의 집'이라는 문패를 제작해 부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패 부착은 관내 아파트 지역에 취약계층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많으나 이웃 간의 교류가 적어 복지사각지대 발생우려가 있어 주민과 복지이장간의 소통강화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가정들이 면사무소를 찾는 중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류철현 협의회장은 "복지허브화가 추진

되고 있는 시점에서 추진된 복지이장 문패는 자연마을과 달리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취약계층의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 정보제공을 위한 것이다. 이번 문패부착으로 우리 지역에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병우 면장은 "주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과 복지사각지대 없는 신창면을 위해 부착한 '복지이장의 집' 문패 부착으로 복지이장의 인적안전망의 구심점 역할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고 민·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충청지역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154억 필요

한국광해관리공단 충청지사(지사장, 강철준)는 관내 150여개 가행광산 중 21개 광산의 향후 5개년('17~'21) 광해방지사업에 먼저날립방지사업 113억원, 폐석유실방지사업 39억원, 오염수질개선사업 2억원 등 총 51개소, 15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수요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17~'21)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강철준 지사장은 "친환경 광산개발을 통해 자연환경 훼손 및 지역주민 피해를 방지하고 최소화시켜 지속가능한 광업활동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할 많이 개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독버섯 주의보’ 발령...10년간 중독사고 213명

국립산림과학원 “야생버섯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장마철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독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독버섯 주의보’를 발령했다. 13일 밝혔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7월은 비소식이 잦고 땅이 습해져 자기 몸의 90%가 물인 버섯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짧은 기간에 성숙하는 버섯은 장마철에 숲 속의 땅과 나무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며 이때 독버섯과 식용버섯이 함께 발생하는 판

급 주의가 필요하다. 개나리광대버섯-여름과 가을 소나무와 참나무림에서 발생하는 독버섯, 식후 10~12시간 후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

여름과 가을 소나무와 참나무림에서 발생하는 독버섯인 ‘개나리광대버섯’. 식후 10~12시간 후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에는 1900여종의 버섯들이 알려져 있으며 이중 243종(13%)이 독버섯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독버섯 중독사고로 213명의 환자가 발생, 그 중 15명이 사망했다. 특히 2010년 이후부터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독버섯을 먹으면 현기증을 비롯해 구토·두통·복통·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곧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때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먹었던 것을 모두 토해내고 먹다 남은 버섯을 가져가 의사에게 보여 주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성숙 국립산림과학원 화학미생물과 과장은 “야생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 중독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가열하더라도 독소 물질은 파괴되지 않는 만큼 야생에서 버섯을 함부로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식용버섯과 독버섯이 공존하는 숲, 숲에서 독버섯을 조심하자’, ‘숲속의 독버섯’ 등의 자료를 발간한 바 있다.

계룡소방서 개서

계룡소방서(서장 이규선)가 오늘 15일 개서 준비를 마치고 화재·구조·구급·민원 등의 모든 소방업무를 시작한다.

소방서는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46(두계리 118-2) 임시청사에 소방행정과와 현장대응단을 운영, 계룡119안전센터와 계룡119구조대의 조직을 두고 55명의 소방공무원과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소방장비의 배치로 4만 1천여명의 계룡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되었다.

이규선 소방서장은 “그 동안 계룡시는 15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소방서가 없는 지역으로 재난사고 시 초기 소방력 집중 투입이 어려웠으나 이제 끝난타임 대용 등 더욱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국방수도 계룡”이라는 명칭과 함께 “안전도시 계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신규 배분사업 준비합니다”

충남모금회, 충남 예산서 2017년 배분사업 설명회 개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관형)는 13일 오후 2시 충남 예산군 예산문화관에서 충남도 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및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배분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해나루보 호작업장, 아산종합사회복지관의 2015년 배분사업 우수사례 발표와 정주석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이 2017년 배분사업 기준 안내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충남모금회는 프로포절 작성법과 질의 응답시간을 갖고, 사회복지기관의 사업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대전시 ‘일본뇌염경보’ 발령따라 각별한 주의 당부

생후 12개월~만 12세 아동은 표준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

대전시(시장 권선택)가 11일 전국에 내리던 ‘일본뇌염 경보’ 발령에 따라 모기에 물리지 않게 어린이와 노약자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모든 모기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렸을 경우 일본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7월부터 10월 하순까지는 각종 질병매개 모기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로 야외활동 및 가정

에서 모기 회피요령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풀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게 좋다.

셋째,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

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윤리,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만 12세 아동은 표준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고했다.

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주로 서식하는 논 또는 동물 축사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질병정보모니터(256개소)와 표본감시 의료기관(61개소)을 통해 일일보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여름철 감염병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호기자

충남교육청, 유해 우레탄트랙 교체 위해 예비비 긴급 투입

방학기간 동안 긴급 철거 및 교체 실시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우레탄 트랙과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100개교 가운데 43곳을 교체 1순위로 선정하고 예비비 40여억 원을 투입해 방학기간 동안 긴급 철거 및 교체를 실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도교육청은 우레탄 트랙 설치학교 159개교 중 100곳에서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철거 및 교체

에 투입될 정부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자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우선 교체 대상학교는 중급속 오염도, 우레탄의 노후상태, 학교급의 특성, 학생수 및 사용빈도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선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학교는 교육부의 예산 지원 상황에 따라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이 철거 및 교체공사에 앞서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재시공 희망유

향을 조사한 결과 100개 학교 중 91개 학교는 우레탄 교체를 선호한다고 밝혔고, 철거 2개교, 마사토로 교체 4개교, 천연잔디 2개교, 우레탄과 잔디 혼합형이 1개교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학생 및 학부모, 지역사회가 불안해하는 만큼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다”며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홍성소방서, 어린이 맞춤형 소방안전체험교실 호응 커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어린이들에게 소방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으로 안전수칙 습득 및 안전의식을 함양시켜 각종 재난 시 대처능력을 키우고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119신고요령 교육과 연기소화기 체험과 방화복·헬멧 착용 포드존을 운영으로 실제적인 체험 위주로 진행되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계절이 도래함에 따라 물놀이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도 실시하였다.

홍성=최진우기자

홍성소방서(서장 김근제)는 12일 오전 동천어린이집 원생 40여 명과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소방안전체험교실

운영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는 최근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순간적인 판단과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유치원생들의 행동

금산소방서, 공장시설 및 창고 소방특별조사 실시

대형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최우선 점검

금산소방서(서장 조영학)는 공장시설과 창고에 대해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공장 73개소, 창고 86개소에 대해 선제적 예방 점검을 실시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번 대상시설을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심의회의에서 선정했다. 조사 내용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소방안전 관리자 업무 추진 실태 ▲공장시설 내 무허가 위험물 등 사용여부 ▲음직, 절단 등 내부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 구조변경 사항 여부 등을 집중 점검 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장·창고 화재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산손실이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 상태를 최우선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산=송광우기자



논산소방서,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대덕구 산탄진동, 산탄권역 복지민들레 회원 역량강화 교육



당진북,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아산경찰서, 청렴 홍보물 입상작 전시회 개최



청양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 본격 운영



공주북, 여성 등산객 안전 위한 캠페인 전개

직장인 10명 중 4명 “올 상반기 이직 성공”

상반기 이직 성공자들의 직무 비율 보면, 생산·기능직 20.0% 가장 많아

올 상반기 이직을 시도했던 직장인 10명 중 4명 정도는 이직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대표이사 윤병준)가 올 상반기 이직을 시도했던 남녀직장인 1,424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이직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이직자 중 40.7%가 올 상반기 이직을 위해 입사지원 했던 기업으로부터 최종 입사 합격통보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잡코리아가 올 5월 말 신입직 구직자 1,1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상반기 취업 성공률 26.2%에 비해 14.5%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입직 취업문턱에 비해 경력직 취업 문턱이 다소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이직을 위해 올 상반기 평균 13.4개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보냈으며, 서류합격 통보를 받은 기업은 평균 2.5곳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잡코리아가 올 상반기 기업으로부터 최종 입사 합격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이직 성공자(579명)들을 대상으로 합격한 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군데 기업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이직자가 45.6%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으며, 이 외에 ▲2군데 기업 27.1% ▲3군데 기업 11.9% 등의 순이었다.

이직에 성공한 기업 형태로는 중소기업(사원수 300명 미만)이 72.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견기업(사원수

300명 이상~500명 미만) 15.0% ▲대기업 7.3%, ▲외국계기업 2.8% ▲공기업 2.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이직 성공자들의 직무 비율을 보면, 생산/기능직이 2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객상담/서비스 관련직 15.5% ▲재무/회계/총무/인사직 14.7% ▲영업/영업관리직 14.5% ▲IT/정보통신직 7.4% ▲마케팅/홍보직 7.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이직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만에 취업에 성공했는지’ 묻는 결과, 1개월~3개월 미만 3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개월~6개월 미만 24.2% ▲한 달 미만 22.1% ▲6개월~1년 미만 10.0% ▲1년~2년 미만

6.0% 등의 순이었다.

이들의 이직에 성공한 노하우 중에는 자신의 업무경력과 매칭되는 채용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직 성공 노하우는 무엇인가(복수응답)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업이 요구했던 업무경력을 보유한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직무분야의 자격증을 다수 보유(26.3%)했거나 ▲근무했던 기업의 규모나 업계에서의 높은 인지도(18.3%), ▲다양하고 튼튼한 인맥(15.2%) 등이 이직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정복기자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성료

190여 편의 연구자료 발표...역대 최고 대회 평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간 세한대학교(총장 이승훈) 산학협력단(단장 최미순)과 충남 당진시가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라는 주제로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전제회의, 분과회의 및 융합토론, 답사와 해양레저 체험 등의 일정으로 구성되었다. 대회 첫날인 7일 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 김홍장 당진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전제회의에서는 환황해권의 해양역사상과 발전정책을 주제로 운영철 통국대 교수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4편의 주제발표와 강연수 충남연구원장 주재로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첫 주제 발표자인 세한대학교 산학

협력단장 최미순 교수는 충남당진의 왜목 마리나 항만 개발을 중심으로 왜목항과 장고항, 석문지구를 연결해 하나의 특화된 벨트로 묶어 충남의 새로운 해양레저·스포츠·관광 발전을 위한 특별지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8일 세한대학교 당진캠퍼스에서는 16분과에 달하는 분과회의 및 융합토론을 통해 하루 동안 190여 편에 달하는 논문이 발표되어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라는 주제에 걸 맞는 학술교류가 진행되었다.

셋째 날인 9일에는 참가자 전원인 내포 해양 문화를 답사하고 10일에는 당진 및 난지도 해양문화 답사를 진행한 뒤 모든 대회 일정이 마무리 됐다.

당진=최근수기자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위한 진학설명회

세종시교육청, 상급학교 선택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의 장 마련



세종시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를 위해 학교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상급학교 선택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을 마련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2017학년도 상급학교 진학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초·중·고, 전공과 진학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장애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겪는 정보의 부재와 그릇된 정보에 따른 심리적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 하고자 추진됐다.

우선, 이경아 박사(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가 “장애자녀를 위한 학교선택과

특수교육경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상급학교 선택 시 고려요소와 자녀를 위해 부모들이 만들어야 할 미래가 무엇인지를 특수교육전문가의 입장에서 제시했다.

특히, 세종시 관내 초·중·고 특수학급 교사와 세종누리학교 특수교사들이 각각 특수학급교육과정과 학급운영사례를 안내하며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어 시교육청 특수교육담당 도경만 장학사가 장애학생의 취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에 관한 안내를 실시해 학부모들이 적절한 교육기관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세종=이정복기자



“내 생각과 꿈을 당당하게 펼쳐라”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재진)은 지난 12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인권침해 예방 및 시사결정력 신장을 위한 ‘2016 특수교육대상학생 나의 주장발표대회’를 실시했다.



엄사중 ‘교장선생님과 함께 하는 맞짱토론’

엄사중학교(교장 이희천)는 7월 12일에 학기마다 실시하는 ‘교장선생님과 함께 하는 맞짱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 ‘맞짱토론’은 학생회의 임원들과 교장선생님이 원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한 시간으로 학기마다 운영되고 있다.

‘맞짱토론’에서 학생들은 3학년의 졸업여행 추진과 학교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였고, 명문엄사중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자유와 질제가 함께 공존하는 학교를 만들자는 성숙한 의견까지 제안되어 참석자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기도 하였다.

계룡=김태선기자



배방고, U&I학습유형 검사 따른 진로 특강

학습 능력 배양하고 다면적 자기이해 통해 진로개발역량 강화 계기

지난 12일, 배방고등학교(교장 장경수)에서는 1학년 전체 학생(476명)을 대상으로 U&I학습유형 검사에 따른 진로 특강이 열렸다. U&I학습유형검사 및 해석을 통해 학생들 개개인의 학습 성향을 파악하여 학습 능력을 배양하고 다면적 자기이해를 통해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계기가 됐다.

진로활동 시간에 미리 실시되었던 사전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학습유

형에 따라 각기 다른 교실에 재배치하여 진로 특강이 이루어졌다.

이번 특강을 기획한 진로부 부장(최은수)은 “학생들이 평소 본인의 행동, 태도, 성격 패턴을 파악하여 최적의 학습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번 상담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학습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산=리량주기자

자유학기 체험활동 체험처 안전 점검 실시

부여교육지원청, 프로그램 질 향상 위한 컨설팅 등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훈)은 지난 11일부터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동 실시에 대비하여 관내 중학교 11교의 진로체험활동 계획서를 취합한 후 분석하여 지역 체험처 13기관 및 공공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체험활동의 안전 점검 및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점검 및 컨설팅은 오는 15일 까지 이뤄지며, 체험처 안전점검은 체험처의 체험시설, 체험처에 사고위험 요소, 안전과 체험처의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강사의 전문성 및 성범죄 등 경력 조회, 만족도 조사 및 환류 등에 대하여 점검했다. 컨설팅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체험처에서 다양한 진로체험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와 체험방식, 체험기간 등을 고려하여 진로체험활동에 필요한 안전 점검 중심으로 이뤄졌다.

점검단은 충남교육청 백옥희 장학관, 윤학중 교육과정, 정명옥 장학사, 최은주 장학사, 진로체험지원센터 홍정희 팀장, 관선리 담당자 이며, 점검일정에 맞추어 합동점검이 이뤄졌다.

세종=이정복기자



홍성교육지원청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해단식 지난 12일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홍성군 선수단 해단식을 가졌다. 이날 해단식은 교육심 교육장을 비롯한 출전했던 7개교 학교장, 지도교사, 코치, 선수들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장학금과 격려금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태안교육지원청 ‘안전한 등굣길’ 캠페인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용주)은 지난 7월 13일 태안초 정문에서 학부모회,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와 함께 ‘우리 아이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

태안=김정환기자



국내이비스 충청본부, 제8회 희망편지쓰기대회 시상식 실시 지난 12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제8회 희망편지쓰기대회’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상 1명, 세종시교육감상 3명, 세종시의회 의장상 2명,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장상 2명, 충청지방우정청장상 2명, 대한인협회 이사장상 10명, 국내이비스 회장상 25명, 국내이비스 충청본부장상 82명 총 127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혁신의 시대에 관리자보다 리더가 필요”

청양교육지원청, 7월 학교경영 소통의 날(관리자 학습공동체) 운영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중철)은 지난 12일 중회의실에서 청양군 관내 유, 초, 중, 고등학교 교원(장)을 대상으로 학교경영 소통의 날(관리자 학습공동체)을 운영했다.

청양교육지원청에서는 그동안 학교 간 협력과 정보 공유에 큰 디딤돌이 되었던 ‘학교경영 소통의 날’을 금년년부터는 ‘관리자 학습공동체’와 일치화하여 매월 한 차례씩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날은 교육장(조중철)과 청양중학교 조국형 교장의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위한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이란 주제로 청렴윤리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강연에 이어 학교별 청렴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학교 관리자로서 청

한 조직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조중철 교육장은 “혁신의 시대에는 관리자를 넘어 리더가 필요하며, 학교마다 교장이 수퍼리더십을 발휘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학교 교육력이 날로 제고되고 청양교육이 더욱 앞장 걸음을 뚫을 수 있도록 꾀와 지혜를 모아가지”고 당부하였다.

청양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교직원 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과 더불어, 학교장으로 서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학교경영 능력 제고를 위한 관리자 학습공동체를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청양=정성범기자

동정

행복택시 시승식



오시덕 공주시장= 14일 오전 11시 우성면 옥성1리에서 실시하는 행복택시 시승식에 참석, 오후 2시 고마에서 열리는 공주시민대학 전문특성화 과정 수료식 참석.

목요간부회의



김동일 보령시장 = 14일 오전 8시 20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목요간부회의 참석, 오전 10시 여름철 피서지 현지격려(대천해수욕장), 오후 2시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열리는 SNS 홍보요원 위촉식, 오후 2시 50분 웨스토포아에서 열리는 3능혁신 김 산업발전과정 워크숍 참석, 오후 3시 30분 여름철 피서지 현지격려(무장포, 용두, 독산), 오후 7시 30분 보령문화에 슬하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보령머드축제 기념음악회(당신을 위한 노래) 참석.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이완섭 서산시장은 14일 오전 10시 서산시의회에서 실시되는 제21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 오전 11시 서산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2016년 서산시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참석.

역사문화박물관 건축설계 보고회



박동철 금산군수는 14일 오전 10시 상황실에서 열리는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건축설계 보고회에 참석.

하계 전국교육장협의회 정기총회



이연주 공주교육장은 14일 오후 1시 30분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열리는 하계 전국교육장협의회 정기총회 및 연수 참석.

전국교육장 하계연수회



박도순 보령교육장은 14~15일 오후 1시 충남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진행되는 2016년 전국교육장 하계 연수회에 참석.

무창포해수욕장 만들기 캠페인

보령시 웅천읍에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무창포해수욕장 일원에서 '쾌적한 무창포해수욕장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시의 역점시책인 '미소·친절·정결'과 연계해 무창포해수욕장을 보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명품 해수욕장으로 만들고자, 상인을 대상으로는 불법 상행위 금지 및 친절한 관광객 맞이,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폭죽 사용 및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웅천읍은 무창포해수욕장을 명품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지난해부터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피폭소, 해경,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단속반을 편성, 노점상 철거와 관광객 폭죽사용 감소 효과를 거뒀다.

신권섭 읍장은 "다시 찾고 싶고, 삶과 휴식이 있는 명품 무창포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 별천포 해수욕장 여름 피서지로 '각광'

일상 속 스트레스 해소 안성맞춤

자갈로 만들어진 서산 대산읍 오지리에 위치한 별천포 해수욕장이 여름 피서지로 각광 받고 있다.

별천포 해수욕장은 예로부터 물이 맑기로 유명하다. 다른 해수욕장과는 달리 모래가 아니라 몽돌로 돼 있어, 해변을 바라보며 자갈이 파도에 이리저리 쓸리면서 내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이뤄 말할 수 없는 상쾌함과 청량감이 든다.

기암괴석의 절경과 울창한 소나무 숲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그 경치를 바라보며 해수욕을 하면 각박한 일상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이다.

별천포 해수욕장 인근에는 콘도나 펜션 등 숙박업소가 많이 있어 소나무 숲 아래에 텐트를 치고 가



족단위 피서객이 즐기는 광경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갯바위에 올라 바다낚시를 즐기고 솔밭 뒤편에 있는 갯벌에서는 소라, 고둥 등을 잡을 수도 있어 어린이 바다생태체험에도

적격이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운이 좋으면 '귀뚜라미 물범'이라는 애칭을 가진 천연기념물 제331호 잔점박이물범을 볼 수 있다고 귀뵈하고 있다.

금산군 불법 건축물 근원적 차단 총력

다음 달까지 집중단속·이행강제금 체납 정리

금산군은 오는 8월 30일까지 주택, 공장 등 최근 사용승인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 등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사용승인 이후 무단 증축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과 불법 변경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군은 이를 예방하고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군은 조사에 앞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인 등에게 현지조사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단속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 안내문에는 조사자 소속, 성명, 조사예정일, 조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단속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지참하고 조사에 나선다. 건축법 위반 여부가 주요 조사 내용이며, 위반 건축물로 확인 될 경우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이행 촉구 통지 및 체납 이후 3회 이상 촉구에도 납부하지

않은 고질 체납자는 재산압류, 강제추진 등 강력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한번 발생하면 단속에 장기기간이 소요되고 자진정비가 용이하지 않아 행정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많아 예방단속을 연중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법 건축물을 강력히 단속하고 위반행위가 시정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손광우 기자



불편·불만·불결 민원사항 신속 해결

공주시, 상반기 생활민원 4천여건 접수·처리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불만·불결의 3불(不)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각 부서별로 관리해오던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생활민원 처리 총괄 운영본부인 건설과 생활민원팀으로 일원화해 SNS 그룹방 운영 등을 통한 신속한 민원해결로 시민 행복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6월에 실시한 생활민원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만족도 80%라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올해 상반기에만 4천여건의 생활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등 보다 나은 생활민원 처리를 통해 변화된 시정의지를 구현하고 시정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8일 공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이장복 안전산업국장을 비롯한 기동처리반 3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민원처리 대응교육'을 실시, 기동처리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과제 토론하는 등 민원처리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진택 생활민원팀장은 "앞으로도 분기별 민원처리 대응교육을 통해 미흡한 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며, "보다 성숙한 현장 위주의 맞춤형 생활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행복 실현을 위한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삼범기자

서산시, 6차 산업 네트워킹 벤치마킹 현장교육

새 농업 부가가치 창출 모색

서산시가 13일 경기도 안성 일원에서 농업 6차 산업화를 희망하는 농업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6차 산업화 네트워크 운영사례 벤치마킹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6차 산업 현장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농업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농업경영체간에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 유통, 판매까지 협업 농업 6차 산업화 네트워크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팽배 금광푸드 영농조합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견학했다. 교육에 참석한 농업인 연중재광

봉면 진장리씨는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하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으로 농업인 소득향상 및 농촌 활력화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공동가공센터가 건립되면 농산물의 생산에서 가공, 체험, 외식까지 경영체간에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공동마케팅이 기대된다."며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판로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우리/동네

콜센터·배송서비스시행

보령중앙시장,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



보령시가 지난 6월 중소기업청이 추진한 2016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공모사업에 보령중앙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7월부터 콜센터와 배송서비스를 시행해 이용 고객의 편의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배송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장보기 도우미 도입 및 주문시스템(스카드폰 앱) 주문 개선으로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보령중앙시장은 서비스 시행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 일부(최대 3년간)와 홍보물, 유니폼을 지원 받게 되며,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배송서비스 이용 방법은 시장 내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 후 배송 희망지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 상점주에게 의뢰하거나 고객이 직접 시장 내 로컬푸드매장에 배송 접수 또는 고객이 직접 배송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배송시간은 1일 총 4회로 오전 9시와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정기적으로 배송하고,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긴급배송도 가능하다. 배송비 산정은 거리에 따라 차등 책정해 2km이내 1000원, 2km~5km는 3000원, 5km이상은 5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또 콜센터는 보령중앙시장 상인회(☎936-4554)와 책임자인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국장(☎010-6472-0030)이 운영한다.

이를 위해 보령중앙시장은 배송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차량 1대를 확보했으며, 콜센터와 배송서비스 요원을 각 1명을 채용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김학동 상인회장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편리한 장보기를 위해 콜센터와 배송서비스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과 이용으로 원도심인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중앙시장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시장 내 주차장에 설치된 특별부대에서 야시장 '불야성'을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머드축제에 맞춰 오는 16일과 17일에는 로데오거리에서 제2회 도심 켄더페스티벌 '도시 열'을 개최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령=김태선기자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시민들 휴식 공간 역할 기대



공주시시장 오시덕은 시민들의 정서 및 건강증진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 옥상에 자연 친화적 공간인 복지시설 나눔숲을 조성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추진한 복지시설 나눔숲 공모사업에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이 옥상녹화를 신청해 선정됐으며, 지난 6월 조성을 완료해 13일 완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나눔숲은 조형소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나무들과 초화류를 식재해 녹색의 공간을 조성하고 밝아도 잘 죽지 않는 디딤잔디와 테크를 시공해 이용객들의 편의는 물론 수목관리를 위한 자동관수 시설을 설치해 관리의 편의성도 도모했다.

김대환 도시정책과장은 "나눔숲이 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정서와 심신 안정을 제공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휴식 공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삼범기자

NAVER logo and search bar

오늘의 하이라이트

▲ 좋은 사람 (MBC 오전 7시50분)



승희(오미희)가 미션(박정수)을 매수했다고 생각한 경주(강성미)는 승희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지만...

▲ 사랑이 오네요 (SBS 오전 8시30분)

과거 양파음료에 얽힌 의혹을 들추는 해인을 다그치는 상호. 해인은 상호의 책장에서...

케이블 영화

▲ 분노의 질주: 더 맥시멈 (OCN 오후 1시40분)

이번 영화가 시리즈 사상 최고의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도미니, 브라이언과...

전세계에 걸쳐 큰 호응 차이를 습격하며 범죄를 일삼고 있는 레이싱톱 스타 작전의 도발을 청하기 위한 것...

단 조건은 멤버들의 전과를 사면해주는 것. 그리고, 마침내 거침없는 액션 본능과 환상의 드라이빙 실력의 특급 멤버들이 모두 모이고...



물으며 궁극해한다. 한편, 다혜는 민수가 자신과 새 디자이너에게 장 교수의 드레스를 동시에 맡기려 하자...

▲ 내 마음의 꽃비 (KBS2 오전 9시00분)



박 간호원은 연희(임채원에)에게 계속이주실기 서둘러 있다는 것을 넘기지 않리고, 집을 나온 덕수(민복기)는 꽃비(나혜령)의 일손을 도우며...

▲ 도둑들 (채널CGV 오후 10시00분)

10인의 도둑, 1개의 다이아몬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팀으로 활동 중인 한국의 도둑 뽀빠이와 에니콜, 씬던검, 집과노. 미술관을 터는데 멋지게 성공한 이들은 뽀빠이의 과거 파트너였던 마카오박이 제안한...

여기에 마카오박이 초대하지 않은 손님, 감옥에서 막 출소한 금고털이 팬시가 합류하고 5명은 각자 인생 최고의 반전을 꿈꾸며...

흥풍에서 한국 도둑들을 기다리고 있는 4인조 중국도둑 쉐, 앤드류, 줄리, 조니. 최고의 전문가들이 세팅된 가운데 서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한국과 중국의 도둑들...

그러나 진짜 의도를 알 수 없는 비밀스런 마카오박과 그런 마카오박의 뒤를쫓을 노리는 뽀빠이.

케이블 & 위성방송: YTN (02)398-8000, 스포츠다이렉트 1588-3200, 한국케이블TV 방송 협회 060-398-3355

Table with 4 columns: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schedules.

프로그램

Large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showing program titles and times.

삼성화재 블루팡스 배구스타들, 대전구봉중학교가다

배구스타가 찾아가는 스포츠 문화체험 학교 운영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웅)은 13일 대전구봉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스포츠 정신 함양 및 체력 증진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배구스타가 찾아가는 스포츠 문화체험학교' 행사를 진행했다.

서산시청 직장사격팀 2016 한화회장배 금빛 '총성'

전국사격대회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5개 획득 쾌거



서산시청 사격팀이 2016년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올렸다.

'여성친화도시 아산' 사업 주민 아이디어 제안 공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여성친화도시 아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시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주민 참여형, 지역 밀착형 여성친화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 문의 ▶ KBS 470-7320 ▶ MBC 220-2348-9 ▶ TJB 281-1101 ▶ 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천도서관, 찾아가는 드림 온 문화학교 참여관 모집

서천도서관관장 이경아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18일부터 26일까지 '찾아가는 드림 온 문화학교'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한밭교육박물관

'3美역사탐구교실' 운영

한밭교육박물관(관장 황선혁)은 오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초등학생 대상 역사교육 프로그램 '3美역사 탐구교실'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1일 3강좌로 5일 동안 5강좌를 운영한다.



유성구약사회,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악품지원 유성구는 13일 구청 행복사랑방에서 유성구약사회(회장 이창환)로부터 후원물품(영양제) 200만원 상당을 전달 받았다. 이날 전달받은 후원물품은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기탁돼 유성구 관내 저소득층아동 20여명에게 1년간 지원 될 예정이다.



산내중합사회복지관, 이룸인도서관 개관식 13일 이룸인도서관 개관식을 진행했다. 신한카드와 사회복자법의 아이들과미레가 함께하는 이룸인도서관 프로젝트의 지원으로 420번째 이룸인도서관이 산내중합사회복지관에 탄생됐다.



호서대 학술정보관 대한민국 우수시설학교 대상 호서대학교(총장 신대철)는 아산캠퍼스 학술정보관이 교육부 주관 2015 대한민국 우수시설학교'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학교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년간 완성된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2015 대한민국 우수시설학교' 작품을 공모했다.



공주시민대학한비아명사 초청 교양강좌성황 2016년 흥미진진공주시민대학 교양강좌 제192차이 지난 12일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한비아 강사를 초청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한비아 웰디자인 세계시민학교 교장은 "당신에게 보내는 '그림의 용기'란 주제로 세계 곳곳의 오지외간급구호 현장에서 얻은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줬다.



주민들의 무사안녕과 풍요를 비읍니다! 청양읍 백천리(이장 이강순)는 지난 12일 마을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의 무사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는 백산동기제를 올렸다.



중기중앙회-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와 업무협약 체결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능력 제고와 해외특허 분배대를 지원하기 위해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대표이사 김광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총장후보자에 대한 면접 실시...참석이사 만장일치로 선출

대덕대 제14대 신임 총장, 김상인씨 선출



김상인 신임총장

대덕대학교 제14대 신임총장에 김상인(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사)이 선출됐다. 대덕대 이사회인 학교법인 창성학원은 7월 13일 대덕대학교에서 2016학년도 제4회 이사회를 열고 총장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해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김상인 전 위원장을 신임총장으로 선출했다. 김상인 신임총장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리버풀대학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력으로는 행정고시제(26회)에 합격한 후 행정안전부 대변인, 제주도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조직실 및 창조정부전략실장,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해 앞서 법인 이사회는 1981년 대덕대학교 개교 이래 첫 총장 공모를 실시하면서 모든 절차를 이사회 의결과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진행했다.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 방식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확정하면서 총장후보자 추천 규정을 제정해 심사절차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교직원, 교수협의회, 교직원회, 직원노동조합, 총동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이 심사의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됐다. 대덕대 관계자는 "그간의 총장 공백상태를 해소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구성원의 모든 바람이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원과 경영진 모두가 하나되어 대학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인 신임총장의 임기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작되며 임기는 3년이다. 이정복기자

(사)부패방지국민운동본부총연합회 '부패방지 청렴인 인증서' 수상



(사)부패방지국민운동본부총연합회 박승환은 7월 12일 동화사 대백에서 '부패방지 청렴인 인증서'를 수상했다. (사)부패방지국민운동본부총연합회에 따르면 수상은 국가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여 맑고 깨끗한 국가를 만들고 행복한 세계를 열어가는 정의로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한 한국효행청소년단 총재, 한국효행수상자 대전효도회장으로 활동 중인 서성해 총재가 선정되어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성해 총재는 43년간의 교직생활과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하기까지 효의 기쁨을 다져, 효문화지원센터 원장을 거쳐, 우리나라 효 실천의 대표자이며 숨은 공로자이다. 이날 수상자인 서성해총재는 "사회정의의 어려운 분들과 함께하며, 사회정의의 위해 더욱 힘쓰려 하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취업 애로계층 수료식' 개최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학장 이배섭)는 13일 본 대학 1층 시청각실에서 취업애로계층 수료식을 진행했다. 지난 4월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3개월간 걸쳐 진행된 '바이오기초심습 및 식품품질관리 HACCP 기초과정'은 실업과 은퇴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주간 4시간씩 취업애로계층 맞춤형 기술교육을 실시해왔다. 이배섭 학장은 "경력단절 여성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됨에 주목하여, 취업애로계층이 지속적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수료생 전원이 희망하는 곳에 취업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말했다. 이정복기자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완공식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권일)은 7월 13일 2016년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사업 완공식을 진행했다.

서산시 부춘동 모범 선행가족 훈훈



서산시 부춘동 주민자치위원회 원인 조덕래씨가 매년 자녀의 생일날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는 선행가족이 있어 훈훈하다. 조 주민자치위원은 지난 12일에도 9세된 아들을 데리고 부춘동 주민센터에 방문,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성금 3백만원을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탁이 아홉 번째로 아들이 대학 입학 이후에는 스스로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 전까지 함께 할 것으로 알려져, 이웃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산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인물로 칭송이 자자하다. 조덕래씨는 부춘동 주민자치위원, 체육회 감사, 새마을지도자, 서명라이온스클럽 회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서산=김정민기자



적십자사, 초·중·고교생 및 일반부 총 36개팀 수상 천안시 응급처치법 경연대회 시상식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회장 민경용)는 지난 12일 천안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제8회 천안시 적십자 응급처치법 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8회 천안시 적십자 응급처치법 경연대회'는 지난 6월 11일 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잔디광장에서 펼쳐진 행사로, 천안지역 청소년 및 시민들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함양과 응급처치법 보급을 목적으로 총 59팀 239명이 참가한 대회이다. 대회 최우수상에는 초등부 천안미죽초등학교, 천안 쌍정초등학교, 중등부 천안성환중학교, 천안 월봉중학교, 고등부 천안 오성고등학교, 천안 월봉고등학교, 일반부 천안신용직심사봉사회(회장 신명애)가 수상하였으며, 자세한 대회 수상자 명단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redcross.or.kr/chejeon/>) 공주=정성범기자



금산군 청소년지원센터, 군청 갤러리에서 전시 금속공예반 작품 모아 전시회 개최

금산군 청소년지원센터 품드림(센터장 박순우)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기개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속공예반 작품들을 모아 금산군청 갤러리에서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금산 여성작가회와 자치종합대학교 화훼, 서양화, 동양화 등의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였다. 전시 기간은 7월 29일까지이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전시회 작품 문의는 (041-751-2007, 751-1383)으로 하면 된다. 금산=손광우기자

동북아 국제관계 및 문화 교류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

순천향대 공자아카데미(사진, 원장 박형춘 교수)는 오는 16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운영예호텔 2층 크리스탈홀에서 '동북아 지역의 공동 발전과 변역'을 주제로 '2016 동북아 국제관계 및 문화교류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순천향대 공자아카데미 중국학연구소와 중국 톈진외국어대(天津外國語大) 동북아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국제정치영역, ▲경제영역, ▲언어교육 및 문화교류 영역으로 나눠져 중점적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 발표로는 오세환 경북대 교수의 '중국 창업 진흥정책 추진배경과 창업협동의 고요효과', 김재필 순천향대 교수의 '신장 타이 시대 중국경제의 공급측 문제와 개혁방안', 황승직 순천향대 교수의 '문화이해가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 13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국외 발표로는 지방공관(姜龍範) 톈진외국어대 동북아연구센터 소장의 '한중관계의 현황과 미래전망', 세딩창(沈定昌) 베이징대 한국학연구소 교수의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 등 중국 학자 13명과 일본 학자 2명이 발표에 나선다. 조별 종합발표에서는 쑨첸 순천향대 공자아카데미 중국학원장의 사회로 조별 종합보고, 장문관(姜龍範) 톈진외대 동북아연구센터 소장 겸 손풍삼 순천향대 총장의 종합발표가 진행된다. 이산=리광우기자



백은집 대전충남병무청장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 방문 백은집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13일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을 방문, 복무기관장과 환담을 나누고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했다.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기고

민선6기 후반기는 주민자치로 가야



유동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충남대학교수

고 이것들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확고한 미래비전과 리더십 정립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급격한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틀, 새로운 사고, 새로운 리더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민선 6기 후반기의 화두이자, 국가와 지역이 생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에 대해 주민들은 종래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모든 것을 의존하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서 자치역량의 회복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개인적 삶의 의미를 부여코자 하는 풀뿌리 혁명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우리는 이러한 대접을 받을 바에야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유권자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정부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근원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정부개혁의 방향과 전략에 의하면, 개혁은 뿌리로부터 상황적으로 나

와야 한다고 전제한다.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을 정부의 효율성 향상이나 능력 증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좋은 사회의 건설에 두고 있다.

즉, 효율적 정부는 좋은 사회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전제하에 전체적으로 좋은 사회에 접근하기 위하여 개인, 가족, 이웃 및 지역의 자발적 주민조직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정부는(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지역사회에 이양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견고한 지역사회의 재건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결국, 주민들의 참여와 협동에 의해 자주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주민자주관리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도 지금부터 견고한 지역사회를 건설해서 개개인이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추구하는 좋은 사회를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의 실질화가 그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의 현안문제들은 지역 사회가 자조적으로 해결하도록 정부가 지원할 때 가장 효과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 선진국 정부들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이나 소

유권을 관료나 전문가의 손에서 지역사회로 그 이양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앙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도 그 정당성과 효율성이 상실되면, 지방정부에 넘길 필요없이 바로 민간부문에 이양시키는 사례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권력이양이 빠를수록 주민과 더 가까운 민주적 정부, 그리고 더 효율적인 정부를 창조해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자치에 있다. 행정이 추구하는 행정목표도 주민들을 규제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도 이제 지역사회의 영역, 곧 자조적 매커니즘이 작용하는 영역을 존중하고 그 영역을 구성할 개인과 단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그 능력을 개발시켜 나가야 하는 중대한 출발점에 놓여 있다.

주민은 이제 일방적인 정부의 통치 대상자도, 그리고 정부가 만족을 시켜주는 단순 고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도 주체적이고 자조적인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정부로부터 주민들이 가나 폐지 취급을 받는 자금의 수모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 6기 2년간의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로 가고 있다. 앞으로 남은 2년도 글로벌화, 지식정보화, 지방화와 민주화, 불균형과 격차라는 급격한 환경변화가 지속될 것이다.

새로운 변화와 함께 더욱 달라질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 그리고 사회제반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국정관리시스템, 새로운 지방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비, 주민참여와 소통방식의 전환, 그리

기고

테러방지법, 경찰이 해야 할 일 무엇인가?



안동현

경찰교육원 교수

경찰과 국가정보원, 국민안전처, 군이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국내·외의 테러에 대한 예방과 진압, 대응 활동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그리고 기존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폐지되면서 테러사건대처책본부가 8개 부처에서 5개 부처로 축소되고,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반테러와 화학, 생물, 방사능 테러에 대해서는 지휘·통솔 권한을 경찰이 맡게 되어 경찰의 테러대응 역량이 강화되었다.

테러방지법령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반테러와 화학생물테러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장이 테러사건대책본부장 구성하고, 지방청에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게 된다. 그리고, 경찰청장이 팀장인 현장조치팀이 구성되어 현장에서의 초동대응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지방청단위 현장지휘본부에 통합상황실이 운영되어 화학분야는 환경부, 생물분야는 보건복지부, 방사능분야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안전처, 군의

지원을 받아 통합운영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여러 부처에서는 경찰이 국내에서 일어나는 테러에 대해서 모든 상황을 통합하여 진두지휘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고 있다. 또한, 지원 부처와의 협력관계, 지원 범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경찰은 테러방지법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대테러 활동을 꾸준히 해 왔던 터라 테러에 대한 예방과 대응 노력은 처음이 아닌 담금질 하는 시기이다.

내부적으로는, 강신명 경찰청장은 "전 경찰의 대테러 요원화"를 강조하면서 테러취약요소에 대한 다기능·다목적 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동조치를 하는 경찰서장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테러예방·대처요령을 교육하였다. 지난 5월에는 대규모 화학생물테러 모의훈련을 충남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경찰교육원에서는 화생방 전문기관인 환경부,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가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경찰관 화생방 전문 교관단을 양성하였다. 화생방 전문 교관단은 17개 지방청에서 활동하면서 지방청장에게 자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테러발생시 현장 초동대응 및 대테러 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외부적으로는, 국민들에게도 믿음과 신뢰를 주어야 한다. 테러 발생시 국민이 불안하지 않고 경찰을 믿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많은 장비와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 경찰의 테러예방활동이다. 14만 경찰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금보다 더 테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어디서든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의식과 테러 발생 시 적절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는 위기의식의 정신무장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난 3월 3일 우여곡절 끝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합과 5월 31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6월 4일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대테러센터가 신설되어

기고

청렴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



백운집

대전충남지방방위청장

시 권력의 최고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정승의 자리에 오랜 기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한 정신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유성룡이 죽자 집에는 남은 재산이 없어 여러 자손들이 살아갈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유성룡의 수제자였던 대재학 정경세는 유성룡의 막내 아들 유진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적어주었다.

"하회의 옛 집에는 다만 유복과 집 한 채, 자손들 나뉘고 찌꺼기 밭에 끼니도 어렵네, 십년 정승 자리 어떻게 지냈기에, 성도의 똥나무 800주도 없단 말인가"

'성도의 똥나무 800주'는 삼국지로 유명한 제갈량이 죽으면서 유선에게 남긴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갈량은 "성도가 똥나무 800주가 있고 척박한 땅 15경이 있어 자손들의 의식주 걱정은 없다"고 했는데, 유성룡은 자손에게 이런 작은 재산

조차 물려주지 못한 청백리(淸白吏)였다.

부와 명예가 보장된 한나라의 정승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데 욕심을 내기 보다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사람, 나라를 위해 한평생 자기 한 몸 희생하면서 자손들에게 물려줄 재산 하나 없이 청렴하게 생활한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공직자로서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다.

이처럼 공직자가 청렴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 선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27위에 올라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했다고 느끼

는지 수치화한 것이다.

랍비 벤 엘르제르는 "진리는 길바닥에 떨어진 돌멩이처럼 어디에나 흔하게 있다. 그러나 돌멩이를 줍기 위해서는 몸을 구부려야 한다"고 말했다. 청렴이라는 진리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말로만 강조하기 보다는 실제로 청렴하게 일하려 노력하는 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공직 문화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청렴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강요와 형식에 얽매인 보여주기식의 청렴이 아닌 스스로 청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강력한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다. 서예 유성룡 선생과 같은 청렴의 롤모델을 통해 생활 속 작은 일에서부터 목표를 설정하고 차근차근 실천해 나간다면 좀 더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설

한반도 지진 대비책 필요하다

지난 5일 오후 울산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강진으로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도 재확인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는 불의 고리도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벗어나 유라시아판의 내부에 위치해 있어 지진 재앙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빈도와 강도는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지진 횟수는 총 1212차례다.

1978년 6차례였던 규모 2.0 이상의 지진 횟수는 지난해 44차례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39차례 지진이 났다.

최근 30여 년간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한 해는 2013년으로 93차례나 됐다.

규모 5.0이상은 전남 울산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포함해 모두 7차례다.

한반도에서 관측된 최대 규모 지진은 1980년 1월8일 평안북도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3의 지진이었다. 전남 울산 지진은 역대 5번째로 큰 규모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시설물조차 내진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4월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을 비롯해 '불의 고리'에 위치한 지역에서의 잇따른 지진으로 국내 지진방재 대책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자 정부가 대책 강구에 나섰다지만 진척은 매우 더딘 상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 10만5448곳의 내진율은 42.4%에 불과하다.

지진은 불확실성을 동반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게 강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퇴직 후 준비 필요하다

한국의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체감 퇴직' 연령은 50.9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 이후를 준비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지난해 조사(52.1세)보다 1.2세 낮아진 것이다. 남성보다는 여성,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다니는 이들이 더 빠른 퇴직을 예상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1405명을 대상으로 체감 퇴직연령을 물어본 결과 남성은 평균 51.7세, 여성은 49.9세에 회사생활을 그만둘 것 같다고 답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비스직에 근무하는 이들은 퇴직 연령을 평균 53.1세로 진단해 다른 직부보다 오래 일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기술직(52.8세)과 영업·영업관리직(51.0세), 재무·회계직(50.2세)도 비교적 일할 수 있다고 느끼는 기간이 길었다. 그러나 인사·총무직(49.7세)과 마케팅·홍보직(49.4세), 기획직(48.6세)은 50대 이전에 퇴

사를 나갈 것이라고 봤다. 특히 인력 순환이 빠른 정보통신(IT)직과 디자인직(47세)은 가장 빠른 퇴직을 예상했다.

기업별로 보면 공기업 근무자들은 평균 54.8세에 퇴직할 것으로 예상해 연령이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은 50.8세였고 대기업 48.8세로 가장 빠른 '40대 퇴직'을 우려하고 있었다. 직급별로는 사원급(51.7세)과 부장급(51.4세), 임원급(51.3세)보다 대리급(49.3세), 차장급(50.1세), 과장급(50.2세)이 생각하는 퇴직 연령이 더 낮았다.

고용 불안정성 때문에 직장인 대부분(73%)이 어느정도 장기 고용이 보장되는 공무원 등으로 이직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인간 수명은 늘어나고 퇴직은 빨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퇴직 후를 미리 대비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때다.

Table with 2 columns: Year and News Title. Includes dates from 2015 to 1995 and various news headlines.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편집국장 한대수, 논설위원 조정호

상당문의 041-733-7200
학교 조형물 리모델링(보수, 도색)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hob**

KIBO
현대공간조형

All children are artists. The problem is how to remain an artist once he grows up. *Pablo Picasso*

더 큰 꿈을 꾸다!

스승 존경과 제작 사랑으로 넘치는 사제간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적 공간 - 학교

학교에 설치되는 동상조형물은 아이들의 사랑을 상징함으로써 영어나 영어영문으로 확대하여 사제간의 애의 표현성을 높이고 지역 상주성, 향토성, 정체성을 배울 수 있도록 보다 넓게 접근과 사랑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작설립과 정감 풍사 하는 제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감적으로 동상조형물이 설치되는 즉 넓은 생각과 사각적 재치를 광범하게 하고 정교한 조각의 견본으로 감동적인 생동감의 비극적감에 비치는 영감이 고귀 특유의 간접적으로 작품되고 있음을 여러 연구보고서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Back view



Front view

작 품 명 위안상(특허등록)

작품크기 1450*600*2300

작품특징 위안상은 양안조형물로 양안은 특수한 정교, 세공대형 신사업장 정교한 작업수단인 정교, 정밀정교의 동상조형 조각의 정교, 정교한 정교 조각품을 제작함

모든 종류의 조형물 전문회사
www.hob-space.com

학교조형물 리모델링
Artschool
I LOVE
SCHOOL

국내 유일 학교조형물 전문회사 (주)현대공간조형이 사랑으로 만듭니다

- 30년 역사와 전통의 학교조형물 전문기업입니다
- 1000여 곳의 학교에서 제작되어온 학교조형물 전문기업입니다
- 학교의 역사, 전통, 특성을 반영하여 높은 수준의 학교조형물 제작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함

- 충청북도교육청 2015. 12. 14. 1000
- 충청남도교육청 2015. 12. 14. 1000
- 충청북도교육청 2015. 12. 14. 1000
- 충청남도교육청 2015. 12. 14. 1000
- 충청북도교육청 2015. 12. 14. 1000
- 충청남도교육청 2015. 12. 14. 1000
- 충청북도교육청 2015. 12. 14. 1000
- 충청남도교육청 2015. 12. 14. 1000

충청북도교육청
(주)현대공간조형
조형물 전문기업
041.733.9558
www.hob-space.com